

지역 소식통

고창군, 2023년도 개별
공시지가 검증 실시

고창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중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국·공유지의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조사대상 토지 22만9488필지 중 개발사업 지역, 신규조사 토지, 골프장 등 특수토지, 전년지가 대비 변동률이 큰 토지 등 총 14만2028필지가 대상이다.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토지가격에 대해 1월 25일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산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가격을 제시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교육지원 보조사업
심의 교육특별위원회 열어

정읍시는 지난 17일 정읍시청에서 지역 내 학교의 교육지원 보조사업 심의를 위한 교육특별위원회를 열었다.

교육특별위원회는 지역 내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다.

이날 위원회는 김형우 부시장(위원장)과 오선익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해 대학교수와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으로 인문·역사 분야 창의인재 육성사업과 학교 환경 개선사업, 정읍농과 활성화 학교 육성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심의·결정했다.

시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정읍의 인문·역사 자원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끌어갈 미래세대 학생들이 인문학적 지식 함양과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귀농 · 귀촌인 전방위 지원

정읍시, 귀농 보조·융자사업 최대 3억원 대출... 3월 2일까지 읍·면·동 방문 접수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꿈꾸며 정읍을 선택한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 활동과 주거 공간 마련 등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주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 자금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용 자금은 7,500만 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영농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문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3월 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오는 3월 2일부터 1차분 접수가 시작된다.

고창군은 올해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 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되어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된다.

1차분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이며, 신혼부부 중 1인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자격 검토 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공음면 한세동마을회관 준공식 개최

고창군 공음면 한세동마을회관 준공식이 지난 18일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오세환 고창군의원, 김만기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한 주민 60여명이 참석했다.

한세동마을회관은 총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1층, 건축면적 63.9㎡의 규모로 건립됐다. 마을 주민들이

더 넓고 아늑한 공간에서 화합을 위한 활동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소통과 화합의 터전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에 정말로 기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 한세동마을회관이 이웃과 함께 편히 쉬고 즐기는 휴식처로 다양하게 활용되리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다문화가정 고향집 방문’ 최대 500만원 지원

정읍시, 총 28가정 왕복 항공료·여행자보험료 등 제공

정읍시가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 위해 나섰다.

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고향 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향 나들이 지원사업’은 정읍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의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억4,200만 원을 들여 결혼이민자 가정에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공항 왕복 교통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28가정으로 4인 가정 기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간 고향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정형편, 모국방문 횟수, 거주(결혼)기간, 자녀 수 등을 종합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가정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4월부터 8월까지 모국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539-5555)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향 나들이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은 741세대 2,709명으로 정읍시 인구의 약 2.6%를 차지한다. 시는 2010년부터 다문화 고향 나들이 지원 사업을 추진해 2022년까지 총 170가정 627명에게 고향 나들이를 지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가족센터, ‘달라진 태권도 교실’ 사업 설명회 열어

부안군 가족센터(센터장 김희순)는 지난 18일 가족센터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달라진 태권도 교실’ 설명회를 열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은 사회성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권체조를 활성화하여 마실축제와 세계잼버리 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한 스트레칭, 문화이해 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 태권도 교실 참여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족센터의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학부모들의 질의응답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희순 센터장은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부모교육, 부부교육 등 다양한 가족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부안군 가족센터는 부모·부부·자녀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비다문화가정도 참여 가능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귀농·귀촌 영농기초 기술교육 개강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20일 귀농·귀촌인 및 예비귀농인 40명을 대상으로 제4기 귀농귀촌 영농기초 기술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교육일정은 4월 18일까지 매주 3회(월,화,수) 총 25회(100시간)로 각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한다.

교육내용으로는 △ 귀농정착지원사업 △작물재배 △ 귀농정착사례 △ 중소형 농기계사용 실습 △귀농 현장 견학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교육시간 80%이상 이수자에 한해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귀농귀촌 영농기초 기술 교육은 교육생들은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교육생들 간의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14기 교육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부안군과 농촌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정착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새로운 생각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부안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